

우애... 보은... 나눔... 행운...

시민 손으로 승화

흥부골 남원농악 경연대회
떡나눔·문화 나눔장터 등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 얻어
아이와 함께하는 유모차 행진도 벌여
지역 대표 나눔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제 25회 흥부제가 지난달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3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흥부제는 공연예술 전문가이자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 감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원일씨를 영입해 남원의 문화적 특성과 전래 흥부전의 공동체 정신을 살린 수준 높은 개막공연을 직접 기획하여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프리마켓인 흥부나눔 알뜰장터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 예촌 프리마켓, 쉼쉴농부들, 남원coop생협 등 시민자율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제25회 흥부제는 지난달 27일 흥부제의 배경지인 인월과 아영에서 고유제와 흥부마을 터울립을 시작했다. 사랑의 광장에서는 4개 분야 24종목의 다양한 나눔 체험과 수준 높은 공연 등이 펼쳐져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27일 열린 개막공연에는 남원시립합창단이 준비한 열정의 하모니 레미제라블과 국내 재즈 하모니카의 최고봉 전제덕 밴드, 포크의 여제 장필순과 어쿠스틱 기타의 황제 함춘호에 이어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김윤희의 판소리가 어우러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제23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장종욱씨 등 4명의 시민에게 남원 시민의 장을 수여했다. 흥부정신을 기리는 흥부가족상 우애·보은 상에는 장선희씨 가족이, 나눔·행운상에는 소용수씨 가족이 선정됐다.

28일 아침차게 기획한 흥부나눔 공연은 색소폰 신동 소현준을 시작으로 크로스 오버밴드 주스프로젝트, 일렉트로나카밴드 소월과 지선, 합합밴드 쿠마파크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감미롭고 흥겨운 가을 축제의 밤을 만끽하기에 충분했다.

사랑의 광장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흥부·놀부 상징 그림그리기 대회', 춘향테마파크에서는 흥부전을 소재로 한 백일장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남원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음연동 농악단의 '제19회 흥부골 남원농악 경연대회'와 국립민속국악원의 기념공연, 제25회 금과강도군 전국 판소리대회 등은 우리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전통문화와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흥부할아버지의 나눔정신을 실천하는 흥부사랑 떡나눔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인 쪼도리쌀을 이용하여 함께 떡을 만들고 맛보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차지했고, 현웃, 현책을 주고받는 가족 장터와 어린이 놀이터, 여성전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흥부나눔 알뜰장터와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 나눔장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나눔

제25회 흥부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개막공연. →



1. 행사 기간 중에 열린 짚공예 체험.

2. 흥부가족상 우애·보은상을 시상받은 장선희씨 가족.

3. 행사장 내에 마련된 어린이 체험.

4. 흥부사랑 떡나눔 행사.

5. 신명나는 농악으로 방문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남원농악경연대회.

장터 판매수익금의 10%는 관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유모차 행진' 행사를 통해 흥부의 다산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결혼 60주년을 맞이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회혼례도 치러졌다. 3일 동안 이어진 드림양상블 색소폰 공연, 뮤지컬 흥부, 흥부골 품바 명인전, 흥부제와 함께하는 국악예술고 공연 등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흥부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2017 남원국제도예캠프에는 미국, 중국, 일본, 터키 등 세계 12개국 외국작가 26명을 포함한 11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기화초대전과 실기시연, 일반인과 함께하는 힐링캠프가 열렸고, 요천둔치에서는 2017 농업기술전 분재 전시와 남원 농업 우수성과물 전시, 체험, 시식 행사 등이 흥부제 기간 함께 열려 축제의 풍미를 더했다.

제25회 흥부제는 나눔과 전래 흥부의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축제로 승화시켜 명실상부한 남원의 또 하나의 대표 나눔·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흥부제 기념식을 통해 김진석 제정위원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나눔의 흥부문화를 공유하고 실천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으며, 이환주 남원시장은 나눔의 흥부정신을 계승·발전해 더불어 잘 사는 남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3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2017. 11. 3. ~ 5. 3일간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주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063)320-2841~2